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일 반 회 계

2021. 1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I. 1인가구특별추진단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123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7억 8천 1백만원 대비 85억 8천 2백만원(227%)이 증액되었음.
- 이중 사업비는 122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1천 9백만원(229.1%)이 증액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천 3백만원(101.6%)이 증액된 1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됨.

< 2022년도 1인가구특별추진단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최종예산	202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인 단 위 회 계	계	3,781	12,363	8,582	227.0
	행정운영경비	62	125	63	101.6
	사업비	3,719	12,238	8,519	229.1

(2) 사업별 분류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세출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
1인가구 삶의질 향상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	2,999	2,999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1,429	2,766	1,337
		주민 안심교류존 조성	-	140	140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	102	102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	402	402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782	576	△206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981	2,813	1,832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342	1,995	1,653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100	100
		1인가구 세대융합형 주거타운 조성	-	263	263
		1인가구 주거안심 상담지원 서비스	-	84	84

(3) 성과계획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2022년도 기관임무로 ‘1인가구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 을 설정하였음.
- 또한 같은 임무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1인가구 수요맞춤형 지원’ 으로, 성과지표를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 로, 목표치 수준을 9천명으로 설정하였음.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9,000	정량	산출	12,238

(4) 성인지예산

- 2022년 성인지예산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1개 사업(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2021년도보다 17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7억 6천 6백만원임.¹⁾
-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을 25개소로 확대하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선정할 계획임.

1)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의 2021년 사업명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으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1,002백만원) 사업 외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380백만원),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47백만원) 사업이 포함되어 되어 총 14억 2천 9백만원임.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성인지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예산(안)	2021최종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2,766	1,002	1,764	176.17%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2년도 신규사업

- 2022년도 신규사업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주민 안심 교류존 조성,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자치구 1인가구 지원 사업 공모 등 7개 사업으로 40억 9천만원임.

< 2022년도 1인가구특별추진단 소관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	증감액 사유
총 계	-	4,090	4,090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	2,999	2,999	노후보안등 3,060등 (10개 자치구) 교체
주민안심교류존 조성	-	140	140	안심교류존 40개소 조성 (개소당 3백만원)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	102	102	인공지능 기반 대화서비스 공모(100백만원)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	402	402	8~12개 자치구 공모 (사업별 30~50백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100	100	안내스티커 제작·배포 (12만개, 8개 자치구)
1인가구 세대통합형 주거타운 조성	-	263	263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실시(1회)
1인가구 주거안심 상담지원 서비스	-	84	84	부동산계약 상담 서비스 (2명, 5개 자치구)

나. 2021년도 완료사업

- 2021년도 완료사업은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9억 9천 2백만원임.

<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완료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	사유
총 계	992	-	△992	사업 종료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185	-	△185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380	-	△380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380	-	△380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47	-	△47	

- 이 중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과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 추진성과와 사업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종료 되었음.
- ‘1인가구 실태조사’ 와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은 1회성 사업으로 올해말까지 추진되고 종료될 예정임.
 -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은 최종 후보 2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안심이사 서비스, 편의점 안심배달서비스 등 일부 공모사업들은 이미 내년 사업으로 편성되었거나 타 시·도에서 추진 중에 있어 실현가능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당선작을 선정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

-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

가. 주요 특징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올해 7월 신설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안심마을보안관,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등 4개 사업, 37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도에는 사업기간 확대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5억 8천 2백만원(227%)이 증액된 123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됨.

<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최종예산	202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소 계	3,781	12,363	8,582	227
	행정운영경비	62	125	63	100.7
	사업비	3,719	12,238	8,519	229.1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03% 수준으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등 신규사업 7건으로 인해 전년도 비중(0.01%) 보다 증가하였음.

<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예산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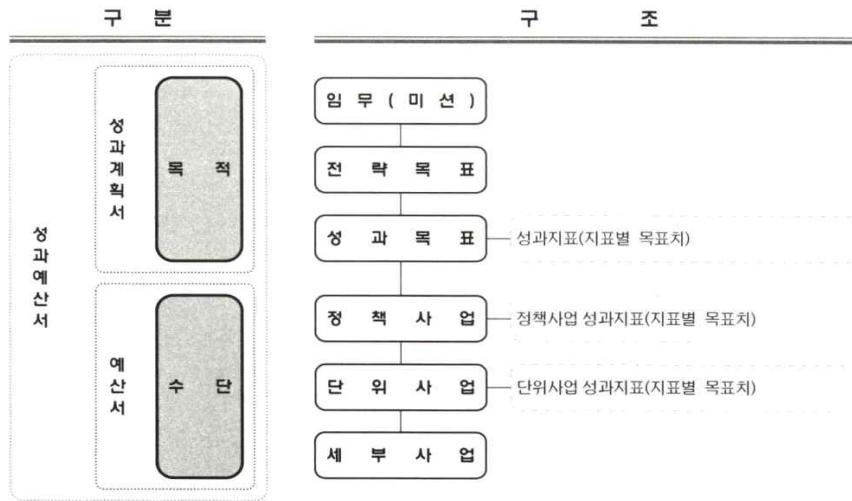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서울시	일반회계	32,528,019	33,352,123	31,228,081
	특별회계	12,476,821	13,129,148	12,846,767
	합계	45,004,840	46,481,271	44,074,848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일반회계	-	3,781	12,363
	특별회계	-	-	-
	합계	-	3,781	12,363
비율(%)	일반회계	-	0.01%	0.04%
	특별회계	-	-	-
	합계	-	0.01%	0.03%

나.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의 보완 필요

- 2008년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면서,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의 의무화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조직의 임무에 근거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와 성과목표(정책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이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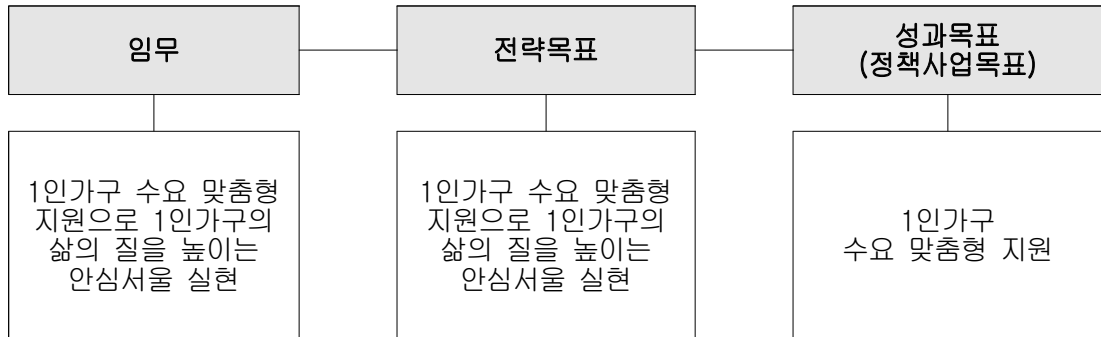
<그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구조



출처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75)

- 이때, 임무(mission)는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로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내 의사소통과 동기 부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목표, 기관의 임무과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부서 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의미함.
- 그러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구분하지 않은 채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 으로 같게 설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임무와 전략목표를 목적에 맞춰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예산성과 목표체계도 >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해서는 안됨(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2017.9.11.).
- 그러나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의 경우 올해 9월말 현재 목표치 8천명을 넘어 1만1천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목표치를 9천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요구됨.
- 한편, 성과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사업은 1개의 담당관(과) 별로 1개 정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1단 2반 6팀) 부서 전체적으로 1개의 정책사업만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대 필요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안심마을보안관’ 1건으로, 여성 1인가구는 주거침입, 절도, 폭행 등 범죄피해에 취약하여 여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었음.
- 그러나,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범죄 예방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사업 중 성별수혜 분석이 가능하거나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관리해야 할 것임.

라.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1)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29억 9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999	2,999	■ 자치단체자본보조 2,999

- 지난 9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 2백만원이 교부되면서, 전체 25개구(51개소) 중 설치완료 된 7개 자치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38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임.
- 무선통신이 제공되는 IoT 비콘점멸기와 앱 연동이 가능한 보안등을 설치하여 휴대폰을 흔들거나 긴급신호를 누를 경우 경찰이 현장출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존 자치구 관제요원과 안심마을 보안관을 연계하여 운영하게 됨.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개요 >

-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12개월)
- ▶ 사업규모 : 총 3,060등(10개 자치구, 1인가구 주거안심구역)
- ▶ 사업내용 : 무선통신이 제공되는 IoT비콘점멸기, 연동 가능한 스마트보안등 설치
- ▶ 운영방법 : 안심이앱 실행시 스마트보안등 자동작동, 신고위치 주변 CCTV확인 출동
- ▶ 소요예산 : 2,999백만원(3,060등*980,000원)

- 최근 주거침입범죄의 증가로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야간통행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경찰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연구(2020)에 따르면, LED보안등 설치로 야간 강도·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본부(디자인정책과)와 균형발전본부(주거환경과) 등의 부서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음.
- 또한, 안심이 앱을 이용한 안심귀가 사업은 2017년부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서울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내년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신규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임.²⁾
- 따라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과 함께 다른 부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여성가족정책실의 개편계획은 볼륨·전원버튼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안심귀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서울시, IT기술 활용한 ‘시민안심귀가 지원 강화’ 추진. 2021.11.17.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보도자료.)

2) 주민 안심교류존 조성

- 새롭게 급증하는 중고물품 직거래 트렌드에 대응하고 1인가구가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래공간을 마련하고자 4개 시범 자치구를 대상으로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주민 안심교류존 조성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40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 120 ■ 사무관리비 20

-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1인가구의 경우 안전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민 안심교류존 조성 추진 개요 >

- ▶ 사업기간 : 2022년 3월~12월(8개월)
- ▶ 사업규모 : 40개소, 120백만원(1개소당 3백만원)
- ▶ 사업내용 : 안심교류존 조성(CCTV, 안심벨, 표지물 등)
- ▶ 추진방법 : 4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실시 후 자치구 확대

- 다만,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는 공원, 편의점 등은 이미 안전한 교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등은 기존 환경이 우수해 별도의 공간조성을 통한 사업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고독사 예방 등 생활관리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에 1억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02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 사무관리비 2

- 생활실험실을 의미하는 리빙랩(Living Lab)은 지역주민이 디지털 기술(IoT, ICT)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참여형 혁신 공간을 말함.

<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개요 >

- ▶ 사업기간 : 2022년 3월~12월(8개월)
- ▶ 사업규모 : 102백만원, 중장년 1인가구 250명
- ▶ 사업내용 : 중장년 1인가구의 AI 전화 대화서비스를 통한 외로움해소·생활관리 지원
- ▶ 추진방법 : 대학교 및 민간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실시 후 자치구 확대

- 외로움과 우울감에 취약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된 디지털기술을 적극 접목할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대화 기술 수준으로는 복잡·다양한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디지털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4)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홀몸어르신들이 각종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와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서울시 전체 홀몸어르신 36만명 중 12만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임.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 96 ■ 사무관리비 4 	

- 그러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양천구, 서대문구 등이 시행 중에 있어 1인가구 지원사업의 총괄부서가 추진해야 하는 고유사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4) 주거분야 신규사업

- 주거분야의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2억 6천 3백만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8천 4백만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 1인가구 주거분야 신규사업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	263	263	■ 시설비 263
1인가구 주거안심 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	84	84	■ 사무관리비 32 ■ 자치단체경상보조 52

-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사업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1인가구 맞춤형 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택모델과 사업화 방안 제시 등의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임.
- 1인가구 주거안심 상담 지원서비스 사업은 부동산을 연계하여 1인가구 맞춤형 주거상담과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것임.
- 그러나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사업은 주택정책과에서 ‘한지붕 세대공감 쉐어하우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사내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역 공인중개사를 연계하는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는 주거상담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 안내와 상담은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불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주거지원 정책 연계 외에 1인가구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할 것임.

(2) 계속사업

1)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18억 3천 2백만원 증가한 28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사업은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7억원),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 확충’ (6억 7천 6백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홍보’ (2억원), ‘1인가구 영상 토크쇼 운영’ (2천만원),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1억 5백만원) 등임.

<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981	2,813	1,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302 ■ 행사운영비 2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5 ■ 자치단체자본보조 676

- 현재 1인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2명)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일부 사무(1개소당 인력 1.7명, 사업비 1천2백만원)로 수행해 왔으나, 1인가구 정책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역량의 한계가 있음.
- 또한,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평가 등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야별 1인가구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자치구·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광역기능을 직접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능을 개편할 계획임.

기 존		개 편(안)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광역)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市 직접 수행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지원 - 자치구 센터 실적 관리, 모니터링 등 - 간담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인적자원 역량강화		· 인적자원 역량강화 : 감사몰 운영, 실무자 교육 등
	·특성화사업 지원	민간 공모	· (신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기존 공공기관 유휴시설을 활용한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1인가구 센터 관련 홍보		· (강화)특성화사업 지원 - 신규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컨설팅
			· 1인가구 홍보: 1인가구 영상 토크쇼 개최 등

- 이와 함께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확충과 기능강화를 목표로 센터별 인력을 3~5명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해 2025년까지 독립형 또는 통합형으로 분리하여 조성할 계획임.
- 현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자치구는 중구, 강북구, 송파구, 강동구 4개소임(21.11.20.기준).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자치구 수요조사 현황 ('21.11.20.기준) >

독립형(3개소)		통합형(6개소)	
리모델링	서초구, 광진구	도봉구(신규), 송파구(신규), 강북구(신규),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구	
임대	성동구		

- ▶ 시설규모 : 독립형 - 500㎡(전용면적 300㎡이상)
 통합형 - 전용사무공간 30㎡이상, 상담실 확보 10㎡이상
- ▶ 인력구성 : 1~2팀, 3~5명 운영 ※ 구별 여건 따라 설치 및 팀 조정 가능
- ▶ 소요예산 : '21년 962백만원 ⇒ '22년 2,481백만원 (1,519백만원 증액)
- ▶ 향후계획 :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

- 그러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총괄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혼선과 이용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1인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치구의 참여 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므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총괄부서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2)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와 1인가구 포털 기능개편 등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5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올해 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3억 8천만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2억 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부사업은 ‘1인가구 인식개선 및정책홍보’ (3억 6천 7백만원), ‘1인가구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억 5천 5백만원), ‘1인가구 정책자문회의 운영’ (1천 5백만원) 등임.

<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782	576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431 ■ 공공운영비 52 ■ 전산개발비 51 ■ 자산및물품취득비 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 ■ 특정업무경비 17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 1인가구 문제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 1인가구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을 통해 1인가구 5대 분야(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안내하게 됨.

- 그러나 현재의 포털 기능이 단순 정보안내 수준에 불과하므로 온라인 신청접수 뿐만아니라 지원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능개편과 고도화가 필요함.

3)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구를 전담하는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여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3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27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429	2,766	1,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보수 2,286 ■ 사무관리비 445 ■ 공공운영비 28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 당초 용역을 통해 민간 전문경비업체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업체의 범죄예방 순찰업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구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초소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
-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사업총괄), 자치구(기간제인력 채용·관리), 서울경찰청(범죄예방활동 기초자료 제공·안전취약지역 선정 협조), 민간경비업체(순찰시스템 교육·장비 제작) 간의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음.

- 올해 10월 25일부터 범죄취약구역 15개소에서 안심마을보안관 60명을 배치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각종 생활안전 대응을 하고 있음.

<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 개요 >

-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12개월)
- ▶ 대상지역 : 여성 등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주거안심구역) 25개소
- ▶ 운영인원 : 보안관 100명(25개소*구역별 4명씩)
- ▶ 주요활동 :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구를 전담하는 보안관 심야시간대 배치
- ▶ 운영시간 : 주5일, 총 25시간 (21:00 ~ 익일 02:30, 5시간)

- 이 사업은 야간시간대의 도보순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경찰의 치안업무 영역 침범 문제로 인해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영역이 초소별 단순 배치와 예방적 순찰, 생활민원 지원 등으로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사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됨.

4)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의 당일 긴급 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19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342	1,995	1,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1,980 ■ 사무관리비 15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32.5%)을 들고 있어 1인가구 정책 수요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전연령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한 당일연계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유사 서비스(돌봄SOS, 노인맞춤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 개요 >

-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12개월)
-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
- ▶ 운영시간 : 매주 월~금, 07~20시
- ▶ 수행인력 : 25명
-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
- ▶ 지원내용 : 병원(입퇴원·통원)동행 지원서비스(서비스 비용 시간당 5000원, 1인당 연 6회)

-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에서 11월부터 수행인력 15명 (콜센터 5명, 동행매니저 10명)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음.
- 다만, 진료와 입·퇴원시 병원 동행은 물론 접수·비용수납관리 까지 일괄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므로 예산상의 수행인력 25명으로는 동행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 혜 미	02-2180-8057